

## 1990年代 國內 女性服 素材傾向과 特性에 對한 研究

河丁元\*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Fabric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1990's Women's wear

Jung-Won Ha\* and Kyu-Hwa Cho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of fabric characteristics in women's wear as reviewing the fabric trends in 1990's domestic fashion. As a method to accomplish this research, I have examined the articles related to fashion fabric and fashion trend magerzines. This study considered women's wear relatively used diverse fabrics, there was not previous study regarding the fabrics used in domestic, since the 1990's.

The social fators for the 1990's fashion were the influence of the informed, the increased concern for the ecological environment, the sattlement of young popular culture, the increase of resonable consume and social anxiety. To understand the fashion trends of the 1990's women's wear, it is divided three periods. The traditional period is from 1991 to 1993, the mixed period of the naturalism and the technology is from 1994 to 1995, the retro period is from 1996 to 1999. The charateristics of the fabrics used in 1990's women's wear were the appearance of various functional fabrics, the development of new synthetic fabric with high sensitivity, the popularization of circular knit, the fabrics with a retro mood toward traditional feminine mood and the blending of fabrics. The fashion of 1990 have ha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utilization of the materials on the base of reasonable and practical trends than the changes of design and detail.

#### I. 서론

최근 패션 업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의 위축에 따른 패션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불황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와 신뢰성있는 패션 정보를 토대로 한 예측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 급진전된 정보화와 이에 따른 환경과 소비자 의식의 다각적이고 빠른 변화는 패션 산업의 고도화 및 정보화를 이루게 하였다. 패션 산업은 단사이클의 잦은 트렌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고감성 문화산업이며 정보산업이며 지식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up>1)</sup>. 따라서 패션 산업의 기획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션 정보의 입수와 활용이 관건이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 패션 산업은 소재 정보와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조적인 변혁을 하기 시작하

였다. 유럽의 소재산지에서 개최되는 소재전시회가 단순한 소재전시의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인 트렌드 정보를 발신하여 패션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sup>2)</sup>, 국내 패션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부 직물업체는 소재 기획뿐만 아니라 정보를 기획하고 발신하는 역할을 하는 패션정보사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대규모 의류업체의 경우 소재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sup>3)</sup>, 소재 기획은 소재뿐만 아니라 유행과 색상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기획하는 상품기획의 핵심이 되었다.

또 세기말의 패션이 다원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극단적인 단순함을 표현하는 미니멀의 조형성이다. 의복 형태의 단순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재와 질감이며, 특히 기술적으로 발달된 다양한 소재에 의해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90년대 이후 부각된 소재 정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아직까지 국내 기성복에서 사용된 소재의 경향과 그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1990년대 국내 여성복의 패션과 소재의 경향 및 그 특성을 연구하여 실제적인 소재 정보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90년대 이후 여성복시장이 타깃별로 세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거나,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캐릭터 존에서 사용되어 대중화된 소재 경향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소재 관련 문헌과 본 연구자가 소재 정보를 담당했던 삼성패션연구소, 인터패션플래닝, 넬리로디(Nelly Rodi), 텍스타일뷰(Textile View) 등 국내외의 소재 관련 패션 정보지 및 스와치 북을 참조하여 1990년대 여성복에 사용된 소재 종류의 경향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즈별 색상, 소재, 스타일의 경향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패션경향의 흐름을 이해하고, 1991년부터 1999년까지를 3기로 나누어 소재경향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II. 1990년대 국내 패션의 환경적 요인

### 1. 정보화 사회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생활의 변화는 바로 정보화이며, 정보화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함께 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생활화를 이루게 되었으며, 패션 산업도 정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패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KFS(Kolon Fashion System)의 패션 트렌드 정보 사업을 시작으로 인터패션플래닝, 삼성패션연구소, 한국유행색협회, 나산패션연구소등 전문적으로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나 직물이나 의류 상품기획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sup>4)</sup>. 해외에서 개최되는 컬렉션과 소재 전시회등의 참관을 통해 세계적인 패션 감각을 직접적으로 받아 들였고, 패션의 유행 사이클은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의류상품 기획에 있어서 반응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스팟(spot) 상품의 기획과 생산에 주력하게 되었다. 소재의 기획과 생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획, 생산과 관련된 납기의 단축을 위해 기술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선염보다는 후염, 체크 무늬보다는 멜란지 후염과 같은 염색에 있어서 제직후의 염색이 보편화되었고, 특히 후가공을 통해 납기의 단축은 물론 다양한 소재의 표면감을 부각시켰다.

### 2.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산업화 이후 지구의 환경이 황폐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해졌다. 이러한 의식적인 배경은 세계적으로 이콜로지(ecology) 또는 리사이클(recycle)이라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의·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패션은 이콜로지 트렌드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연 색조, 천연섬유를 의식한 다양한 소재 개발, 동·식물을 사용한 무늬,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등 이콜로지를 근거로 한 다양한 패션의 요소들이 나타났다. 이콜로지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에서 색상은 주로 베이지, 브라운 등의 땅의 색과 함께 하늘이나 물을 표현한 블루 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소재는 자연 소재를 위주로 가공을 하지 않은 거친 상태를 표현하거나 구김 가공을 하는 등 천연 그대로의 질감과 색감을 살린 소재들이 많이 나타났다. 린넨은 대표적인 소재로 부상하였고, 면이나 실크, 울에서도 린넨의 감촉이나 표면감을 적용한 소재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 동물의 털이나 가죽과 같은 천연 그대로의 소재를 가공한 소재들도 이콜로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인기소재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텐셀은 자연스러운 표면감 뿐만 아니라 제조공법상 환경친화적인 특성과 함께 최대의 이콜로지 소재가 되었다.

### 3. 젊은세대 중심의 대중문화의 확산

현대는 젊은이들의 시대라 할만큼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X세대로 불리우는 젊은이들은 1990년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들 X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상과 통신매체가 발달한 사회속에서 성장하여,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감성적이고 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sup>5)</sup>. 이들은 스포츠나 음악에 열광적이어서 운동선수나 뮤지션들이 새로운 영웅이 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주었고, 따라서 이를 통해 창출되는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은 곧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확산되어 대중문화 자체가 되었다<sup>6)</sup>.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스포츠와 스포츠 스타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sup>7)</sup>, 스포츠 웨어는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색상과 소재 그리고 스타일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 1990년대의 패션의 캐주얼화를 이끌었다. 특히 스포츠 웨어의 활동성과 기능성이 주목되면서 기성복 업계에서는 스포츠 웨어용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1990년대 소재의 경향이 점차 스트레치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의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 4. 세기말적인 사회 불안의 증가

1990년대는 급격한 정보화와 현대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많은 갈등과 혼돈속에서 지내왔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붕괴, 걸프 전쟁, 내란과 테러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sup>8)</sup>. 혼란한 세기말적인 현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복고적인 경향과 동시에 동양적인 사상의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대를 회상함으로써 안정을 되찾으려는 복고의 경향과 정신성을 강조하는 동양의 사상적인 영향력은 세기말을 유지하는 트렌드로 영향을 주면서 패션에서 표현되었다. 반복되는 레트로(retro)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1990년대 패션은 다양한 스타일의 복고풍 패션을 리바이벌시켰다. 70년대 히피(hippie), 60년대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50년대 오드리 햅번의 환생을 보는 듯한 다양한 레트로 패션이 등장하면서 레트로와 동양적인 요소의 도입은 단순하고 현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패션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여성스러운 감각을 더해주고, 다양한 색상과 소재의 창조력에 영향을 주었다.

신체의 선을 드러내는 구축적인 실루엣과 페미닌한 감각의 디테일, 남성복조의 해링본, 스트라이프 등의 무늬, 레이스나 투명 소재같은 여성스러운 소재, 동양적인 전통적 요소를 함유한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 5. 합리적인 소비의 증가

1990년대는 합리적인 소비의 시대를 맞이한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어온 경기 침체에 의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성숙해진 소비자들에 의한 합리적인 소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의식은 패션과 유행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재고 상품이나 이월 상품이 유행을 지난 상품이라는 편견을 없애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할인매장이나 아울렛(outlet)과 같은 새로운 유통업태를 탄생시켰다<sup>9)</sup>. 또 상품기획에 있어서도 리얼 클로스(real cloth)<sup>10)</sup>, 세퍼릿 토털(seperate total)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면서 슈트 위주의 세트보다는 단품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였고<sup>11)</sup>, 디자인이나 디테일보다는 소재나 색상의 코디네이트와 실용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패션상품의 기획에 있어서의 소재 기획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실용적이고 트레이디셔널 감각의 소재 비중이 많아졌고, 소재의 조합을 통한 차별화는 패션 상품의 기획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III. 1990년대 국내 여성복 소재 경향

1990년대 패션 경향이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나 섬유관련 자료와 국내 패션 정보사 및 해외 정보지의 트렌드 북을 근거로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여성복의 패션을 크게 3기로 나누어 그에 따른 소재경향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 1. 합리적인 트레이디셔널기(1991년-1993년)

##### 1) 트레이디셔널 감각의 하이 터치<sup>12)</sup> 소재

80년대의 과장된 아방가르드 패션에 식상한 소비자들이 새로운 패션에 대한 기대로서 트레이디셔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트레이디셔널 패션의 부각은 단순한 복고풍, 전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투피안 엘레강스 또는 아메리칸 트레이디셔널의 양방향성을 이루었다. 특히 자연주의와 결합된 이태리풍의 뉴트레이디셔널이 숙녀복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트렌드로 정착하면서 부드럽고 여유있는 슈트 중심의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소재에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강조할 수 있는 소프트 터치(soft touch)와 함께 경량화가 매우 중요해졌다. 기본적으로는 울이나 실크, 울/실크의 혼방을 통해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했고, 크레이프(crepe)나 조젯(georgette)같은 조직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 부드러운 손맛을 기본으로 한 실크조의 소재가 등장하여 여성복 패션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실크한 감각의 유행은 면방을 시작으로 화섬부분도 합세하여 저가 이미지를 탈피한 피치스킨(peach skin), 마이크로 파이버(micro-fiber)등 극세사류까지 등장했으며, 실크 샌드워시(sand-wash)의 인기에 편승해 큐프라(cupra)<sup>13)</sup>도 패션소재로 사용되었다.

##### 2) 스포티 감각의 실용적인 소재

'88 서울 올림픽이후 캐주얼 마인드의 이지 웨어(easy wear)의 붐과 함께 심플한 베이식(basic)을 선호하는 아메리칸 트레이디셔널 경향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보다는 기본 스타일의 단품을 위주로 색상과 소재에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이 시기에는 상품 기획에서 무엇보다도 색상과 소재의 기획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 스포티 감각의 진 소재와 저지 소재가 급부상하면서 단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 진은 먼 데님뿐만 아니라 고강력 레이온이나 울을 혼방하여 폭넓게 사용되었고, 다양성을 위해 인디고 염색이나 강력한 스티치, 워싱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용적인 저지는 소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T.P.O.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하게 사용

되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함과 실용성, 비교적 싼 가격으로 소비를 유도하면서 여성복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소재가 되었다. 저지는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되면서 신축성을 가미하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다른 소재와 믹스되어 사용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 3) 노스텔직풍 소재

90년대 초에 '기본으로 돌아가자(Return to Basic)'는 개념이 전세계의 패션계에 영향을 주면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과 함께 슬림한 실루엣의 세련미와 풍요로운 감각의 릴랙스 글래머(relaxed glamour)가 여성복의 테마가 되었다. 특히 남성적인 감각과 여성적인 감각이 믹스된 30-40년대의 향수 어린 노스텔직 룩은 새로운 소재군을 표현했다. 조밀한 트윌조직에 의한 은은한 광택감을 가진 울 개버딘(gaberdine), 베네시안(venetian), 자연스러운 투명감을 주는 트로피컬(tropical), 시폰(chiffon), 투명 소재에서 하이 테크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군이 나타났다. 거칠고 자연스러운 면을 강조한 컨트리 스타일의 멜란지(melange) 울이나 트위드(tweed)도 이러한 경향을 더해주었다. 부클레(boucle), 링 안(ring yarn), 루프 안(roop yarn)등을 사용한 팬시(fancy) 직물은 심플한 디자인에 활력을 주었고, 소재에서 표면감은 더욱 중요해졌다.

## 2 자연주의와 테크놀로지 혼합기(1994년-1995년)

### 1) 내추럴 감각의 소재

패션은 이러한 자연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내추럴, 리싸이클, 그런지(grungy)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스타일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은 기본적인 디자인의 아이템들을 한꺼번에 걸쳐입는 레이어 코디네이트(layered coordinate)로 다른 색상, 다른 소재, 다른 무늬의 소재를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sup>14)</sup>.

소재에서는 특히 자연스러운 표면감을 지닌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춘하에는 린넨, 린넨혼방과 같은 내추럴 무드의 소재군이 많이 보였다. 그 외에도 울, 실�크 등의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울은 좀더 내추럴한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나 가공이 중요해졌다. 표면이 거친 트위드나 헤링본(herringbone), 팬시 안을 사용하거나 표면에 입체감을 준 소재와 자연스러운 기모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소재의 특징은 자연 소재 자체의 소박함과 품위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내추럴하고 러스틱(rustic)한 표면 효과나 다양한 조직과 외관의 가공처리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가공에 있어서도 불규칙한 주름 가공이나 크리스

(crease)등의 구김가공이 등장하였고, 낡은 듯한 효과를 주는 워시(washed) 가공도 많이 사용되었다.

### 2) 밀리터리 풍 소재

199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특히 동구권에 대한 관심은 밀리터리 룩의 회귀라는 패션의 새로운 조류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90년대의 밀리터리 테마는 단순히 밀리터리 룩만이 아니라 절제된 유니폼의 이미지,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이미지, 스포티한 감각과 어울리면서 70년대의 밀리터리 패션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sup>15)</sup>.

밀리터리에서 파생된 패션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여진 소재의 경향은 바로 추동에 나타난 피혁 소재이다.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피혁 의류의 패션화는 젊은이들의 가죽옷 선호경향<sup>16)</sup>, 그리고 내추럴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트렌디한 상품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양가죽, 소가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 것은 물론, 가공을 통해 새로운 표면감을 강조하였다. 특히 거친 느낌의 워시처리 소재는 히피 룩의 유행과 함께 오래되고 낡은 듯한 표면감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털의 끝에 컬(curl)처리를 한 커리램(curly lamb)은 동구권의 복고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인기소재로 등장하였고, 스웨이드(suede)나 무톤(mouton)등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 3) 내추럴 쿼터르 소재

이 시기의 패션은 극단적인 내추럴의 경향에서 복고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보인다. 60년대 풍의 미니멀 스타일 또는 남성적인 댄디풍의 복고 경향이 트렌드로 나타났다.

소재는 내추럴한 경향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레트로의 경향이나 테크니컬한 경향을 수용하여 나간다. 울은 기존의 개버딘이나 트윌등의 단조로운 소재의 표면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멜란지 안을 사용하였고, 남성적인 헤링본과 트위드, 스트라이프, 팬시 안이 가미된 트위드등도 함께 사용하였다. 색상의 경향이 내추럴에서 벗어나 좀더 선명해지면서 실버 터치의 광택에 주목하게 되면서 광택 소재가 급부상하여 안감으로만 인식되어온 아세테이트 소재가 니트를 중심으로 히트소재가 되었다. 또 이 시기에 투명소재가 새롭게 나타나 의류뿐 아니라 패션잡화에서 인기였으며, 투명 비닐 소재는 부분적인 디테일 소재에서 벗어나 주 소재군으로 자리를 잡았고 핸드백과 구두, 벨트와 서스펜더등의 아이템을 패셔너블하게 만들었다. 투명 비닐소재는 특히 메탈릭, 펄 광택의 소재와 어울려 하이 테크와 사이버 트렌드를 대표하는 최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감각적인 패션을 연출하였다.

### 3. 모던 엘레강트기 (1996-1999)

#### 1) 신축성 소재

1990년대 초부터 패션은 과거에 대한 회귀의 경향 또는 소비자의 여성스러움에 대한 요구등으로 페미닌하고 로맨틱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비교적 가늘고 긴 실루엣이 트렌드로 나타나면서 신체의 노출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만 특히 활동성에 구애받지 않는 피트(ㄴ)한 디자인의 주목은 신축성있는 소재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만들었다. 신세대와 영커리어층은 편안함, 기능성, 활동성과 함께 패션감도를 겸비한 스타일을 원하게 되었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스트레치 소재는 폴리우레탄계 섬유를 원료로 다른 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탄성을 준다. 이러한 스트레치 소재의 개발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합섬, 울, 코튼, 실크, 아세테이트, 레이온 소재와의 다양한 개발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 트렌드로 부각되는 스트레치성 소재군은 색소니를 기본으로 힝코드, 개버딘 평직의 변화로 위사뿐 아니라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까지 전개되며 팬시 직물 및 방모 트위에도 스트레치사를 사용하여 두께감 있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2)테크노 쿼터 소재

세기말적인 복고풍의 경향과 테크놀로지의 혼합은 테크노 쿼터라는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냈다. 쿼터적인 룩과 디테일을 보다 테크니컬하고 샤프하게 표현하여 레트로 무드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과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한 스타일이다.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쿼터의 구조적인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트레치성과 볼륨감이다. 또 입체감있는 실루엣을 위해서 플란넬등의 방모소재, 펠트등의 조밀한 눈우븐(non-woven) 소재가 부상하였다. 또 엘레강스한 요소로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는 소재들은 광택 소재군으로 고급스런 광택의 레이온 소재,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를 이용한 사틴 트윌 조직의 소재<sup>17)</sup>, 고급스런 광택과 다양한 가공으로 표면감에 변화를 준 벨벳 소재가 나타났다.

활동적인 면과 외관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소재로 인조 모피는 폴리에스터/아크릴 소재가 주류를 이루며 인조 피혁은 폴리우레탄 소재와 비닐 소재가 주종을 이루면서 뱀, 호랑이, 얼룩말 무늬 등 다양한 동물 표피의 무늬를 그대로 표현하여 내추럴을 지향하는 트렌드에도 적중하였다. 인조 피혁은 뒷면에 기모물 또는 스펀지를 부착시킨 본딩(bonding) 소재로 재킷이나 코트에 사용되었다. 킬팅 처리에 의한 다양한 패턴과, 볼륨감있는 패딩 소재들도 많이 사용되었다.

### IV. 1990년대 국내 여성복 소재 경향의 특성

#### 1. 신축성 소재

신축성 소재는 1990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여성복 소재의 전체적인 경향을 이끌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신축성 소재는 폴리우레탄계 탄성섬유를 첨가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울, 코튼, 린넨, 기타 합섬 등 거의 모든 소재에 신축성을 가미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신축성 소재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 듀퐁(Dupont)사의 라이크라(Lycra)는 80년대 말부터 활발한 마케팅과 광고전략으로 인해 소재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sup>18)</sup>.

전체적인 패션의 트렌드가 복고지향으로 가면서 스타일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마인드 소비자군에 의해 신체를 드러내는 과감한 스타일이 선호되어 졌다. 소비자는 타이트하게 몸매를 드러내면서도 활동에 불편해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으며, 고급스러운 울 스트레치의 슈트에서(그림 1) 캐주얼한 스타일의 스트레치 팬츠에 이르기까지(그림 2) 다양한 스타일에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복고풍기(1996-1999)에서 나타나는 기능성 섬유의 대부분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의미할 정도로 90년대 후반까지 탄성 소재는 전 소재의 스트레치화를 이끌었다.

#### 2. 신합섬 소재

신합섬은 천연섬유의 기능을 능가하면서 패션 소재로서의 범위가 확대되어 여성복에까지 확산되었고, 저가의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주목을 끌었다(그림 3). 자연 섬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합섬의 특성을 가미하여 촉감이나 광택 그리고 드레이프성을 유지하는 하이 터치 소재는 부드럽고 섬세한 질감의 마이크로 파이버, 광택과 드레이프성이 뛰어난 신실크, 풍부한 드레이프성이 특징인 레이온 등이 있다(그림 4). 신합섬은 표면감이나 촉감, 드레이프성뿐만 아니라 기능성 소재에 까지 확대되어 9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신합섬은 패션성을 가미한 감성 소재로 인식되었다.

신합섬은 광택이나 질감에 의한 표면감, 또는 드레이프성 뿐만 아니라 극세사 직물 및 자외선 차단섬유, 대전방지 가공섬유 등 기능성 직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패션성을 살리면서도 취급이 용이한 상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기능성을 접목한 패션 소재를 적극 활용하였고, 마이크로 파이버 직물 또는 청량감 소재 등 강연물의 사용율이 높아졌다. 신합섬은 주로 이수축(異收縮) 또는



〈그림 1〉 스트레치 방모 트윌 소재의 슈트  
(’97 추동, 조넨)



〈그림 2〉 신축성 소재의 스트레치 팬츠  
(’92 추동, 데빠세)



〈그림 3〉 섬세한 표면감의 마이크로 파이버 재킷  
(’97 추동, 어텐더)

이(異)데니어(denier)의 복합사를 사용하여 표면에 희끗희끗한 효과를 주기도 했다<sup>19)</sup>. 특히 여성복에서는 폴리노직, 모달(modal), 텐셀(tencel)류도 신합성군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린넨, 실크와 같은 천연 섬유 특징에 하이 테크 감각이나 광택감, 탄력성을 부여하여 합성의 고급화를 시도하였다.

### 3. 새로운 감각의 자연 소재

신축성 소재의 급부상, 신합성의 등장과 함께 천연섬유를 원료로 하는 자연 소재의 경향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울은 나일론 코아(core) 안이나 사이로 스펀(siro spun) 방적사를 사용하여 청량감과 경량화를 이루어 여성복의 고급 소재로 사용되었다. 또 코튼이나 린넨 소재는 나일론이나 폴리, 레이온과 블렌드하여 광택과 부드러움을 보완한 복합 소재나 크리스 가공 또는 코팅을 통해 테크니컬한 변모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가공도 프린트를 하고 그위에 코팅을 하는 복합적인 가공을 하였다. 여성스러운 투명한 소재의 등장과 함께 보일이나 거즈, 또는 투명감을 주는 느슨한 조직에 의한 비치는 효과의 소재도 여성복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5).

무엇보다도 자연 소재에서의 큰 변화는 폴리우레탄계 섬유를 함유한 스트레치화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연 소재의 활동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었다. 전체적인 트렌드의 경향이 미래주의와 테크노의 경향을 띠면서 기존의 자연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보다는 기술적인 안 믹스나 후가공에 의해 나타나는 표면감이나 물성상의 변화를 선

호하면서 자연 소재에서의 기술적인 발전이 더욱 진전되었다. 신합성과 자연 소재는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고 서로를 닮아가려는 성격을 띠고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 4. 편성물 소재

저지는 스포츠와 언더 웨어를 위한 소재로 인식되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아웃 웨어를 위해 사용되면서 캐주얼이나 스포츠 웨어에서 많이 쓰였고, 90년대 이후는 여성복에서 주목받는 소재로 부각되어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되어 왔다. 이것은 단순히 저지가 지닌 편안함이나 활동성뿐만 아니라,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캐주얼 마인드, 스포티 마인드가 확산되고 의복에서 격식보다는 몸에 편한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저지의 급속한 부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소비가 합리적, 실용적, 기능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1980년대 말 환편니트 전문브랜드가 생기면서 니트류 소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가볍고 편하며 드레이프성이 좋아 이지웨어로서 각광을 받았다. 니트 특유의 실용적인 특성과 합리적인 가격이 부각되면서 90년대 이후 소재와 디자인의 다양한 개발로 패셔너블하게 코디네이트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면서 발전을 했다. 저지는 유행 사이클이 없어 매출에 큰 굴곡이 없으며 재고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과 함께 전 여성복에도 확산되어 원피스, 스커트, 티



〈그림 4〉 광택, 드레이프성 소재의 원피스  
('96 춘하, 리씨)



〈그림 5〉 크리스 가공의 투명 소재 원피스  
('96 춘하, 머스트비)



〈그림 6〉 스트레치 저지 소재의 원피스  
('98 춘하, 모리스커밍홀)

셔츠 등의 단품에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6). 특히 96년 춘하를 기점으로 티셔츠의 대 히트를 위시해 저지는 일정 브랜드만의 독점상품이 아닌 가장 대중적인 소재가 되었다.

## 5. 페미닌 소재

1990년대에는 여성스러움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로맨틱시즘과도 연관성을 갖는 이러한 여성스러움은 세기말적 현상인 레트로 무드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광택을 함유한 풍부한 색감, 길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과 상의는 꼭 맞고 갈수록 넓어지는 스타일, 또는 원피스 드레스와 같은 여성스러운 아이템이 인기였다.

여성스러운 소재의 특징은 다른 장식을 첨가하기 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함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들이 나타났다. 투명소재, 폴리에스터나 실크 시폰, 오간디(organdie)등의 소재에 의한 투명감, 또는 메시(mesh)조직이나 번 아웃(burn-out)등의 부분적인 투명감을 표현한 소재들, 그리고 여성적인 무늬를 자카르나 프린트물로 표현하기도 한다(그림 7). 또 벨벳과 같은 고전적인 광택감의 소재나 레이스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90년대에 사용된 여성적 성향의 소재들은 어느 한 시기에 부각했다기 보다는 꾸준히 사용되면서 서로 다른 소재들과의 코디네이트를 통해 소재의 사용과 그 표현에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하였다(그림 8). 자연주의와 테크놀로지의 혼합기(1994-1995)에서는 투명한 소재가 대거 등장하면서 겹쳐 입는

효과를 배가시켰고, 실버 광택의 부드러운 표면감과 함께 꽃무늬 프린트 소재가 여성스러움을 살려 주었다. 특히 레이스 소재들은 피혁이나 모피소재와도 어울려 코디네이트의 묘미를 보여 주었고, 남성복풍의 댄디 감각의 소재와도 함께 사용되었다.

## 6. 하이테크 가공 소재

신축성 소재, 신합섬의 등장과 함께 소재에서의 기술적인 가공이 부각되었다. 가공은 또다른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소재에서의 가능성과 표면감을 강조하였다. 90년대 초반에 많이 사용된 피치 스킨(peach skin)과 같은 부드러운 감촉을 위한 샌드 워시, 워시드 가공으로 스웨이드 효과의 소재가 확대되었고, 울 소재의 경우는 부드러운 기모 가공을 통해 더욱 소프트해 졌다.

더블 페이스(double face) 효과를 위한 이중직은 겉과 안의 표정이 다른 소재로 예를 들면 겉은 나일론 트윌, 안은 기모 소재 또는 플라플리스 등의 소재로 하거나, 색상을 다르게 한 이중 색상의 리버시블(reversible), 무지와 패턴물을 조합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소재를 조합하기 위해 직조를 이용하거나 본딩등의 기술을 사용한 것들이 있다.

본딩 가공은 볼륨감을 주는 특징으로 단순한 디자인의 재킷이나 코트에 많이 사용되었고, 킨팅 또한 이러한 볼륨감을 주며 초음파 킨팅, 박음질 킨팅 가공에 의한 패딩 소재는 대중적인 소재로 사용되었다. 또 소재에서의 테크니컬한 표현



〈그림 7〉 자카드 패턴의 새틴 소재 슈트  
(’97 춘하, 리씨)



〈그림 8〉 멀티컬러 트위드의 재킷  
(’92 춘하, 아나카프리)



〈그림 9〉 투명소재와 벨벳의 소재조합  
(’94 추동, 머스트비)

을 위해서 비닐 코팅의 가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코팅은 고전적인 헤링본, 트위드 등의 울 소재에 사용하여 패셔너블한 소재가 되었다. 부분적인 투명감과 자연적인 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번트 아웃 프린팅<sup>20)</sup>같은 가공을 하였는데, 복합 소재에 사용된 이러한 가공은 소재에 경량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 7. 소재의 복합화

소재의 복합화는 두가지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가지는 원료의 복합화에 의한 것과 또 한가지는 의복의 구성이나 코디네이트에서 나타난 소재의 복합적인 요소이다.

소재에 사용된 원료의 복합화 경향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친숙한 것은 바로 스트레치 소재이다. 이렇게 소재의 복합화는 교직이나 교연과 같은 원사 상태에서의 복합화를 통해 섬유 특성상의 변화는 물론 꼬임이나 팬시안을 사용하거나 색상이 다른 안을 교직하여 전혀 새로운 표면감을 지닌 소재를 만들기도 하였고, 또는 새로운 색상을 창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텍스타일 디자인을 통해 소재 디자인의 오리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원사 상태의 교직이나 교연은 물론 원료 자체를 섞는 블렌딩(blending)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코튼/폴리, 코튼/나일론, 코튼/폴리/스판사로 제작된 각종 소재들은 코튼에서 부족한 드레이프성을 보강하여 부가가치를 높였고, 이러한 방법의 소재의 복합화는 특히 천연섬유의 단점



〈그림 10〉 단품의 코디네이트에서 표현된 소재의 조합  
(’95 추동, 미셀 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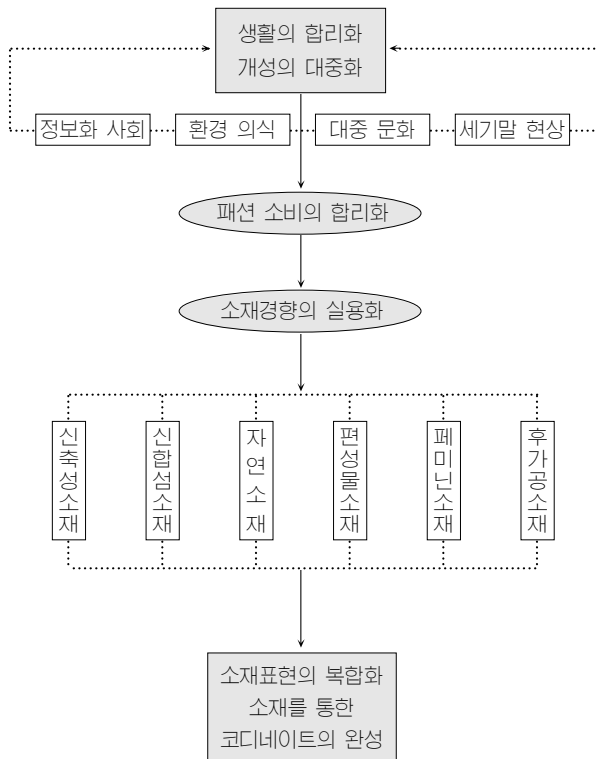
을 보완하기 위해 테크노 파이버와의 복합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소재의 복합화에서 볼 수 있는 또 한가지의 방법은 의복과 디자인 면에서 사용된 다양한 소재의 코디네이트이다. 이것은 한가지 아이템에서의 소재의 코디네이트는 물론 레이어드 스타일에서 사용된 소재의 코디네이트도 포함된다(그림 9) (그림 10).

이상과 같이 1990년대의 패션 소재의 환경적 요인과 경향,



〈표 1〉 1990년대 패션 환경과 패션 소재의 특성



특성의 연관 관계를 간추려 보면 〈표 1〉과 같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연구한 결과 1990년대 국내 패션의 환경적 요인은, 첫째 패션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 가속화된 정보화, 둘째 자연주의 패션과 자연 소재를 부각시킨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 셋째 개성과 코디네이트의 개념을 부각시킨 젊은 세대 중심의 대중 문화의 정착, 넷째 다양한 복고풍 패션을 패션 트렌드로 이끈 세기말 현상, 다섯째 합리적인 소비 의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1990년대 국내 여성복에 사용된 소재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과 기능성을 가미한 신축성 소재, 자연 소재의 기능을 능가하면서 패션 소재로 부각된 신합성 소재, 기술적으로 변모한 자연 소재, 편성물 소재의 대중화, 페미닌 소재, 하이테크 가공 소재, 소재의 복합화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1990년대 여성복의 패션 경향은 트레이디셔널, 자연주의와 테크놀로지의 혼합, 모던 엘레강트 등으로 전개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고 전반적으로 1990년대 여성복 패션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을 띠면서 디자인이나 디테일등의 변화보다는 소재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초

점을 두었음을 지적할 수 있고 나아가 200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좀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1990년대의 소재 경향과 그 특성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패션 소재의 특성을 전망해 보면, 인간적 감성의 하이테크 소재,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 변화된 천연소재, 경량화 소재, 개성적인 복합화 소재, 그리고 동양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고 감성의 소재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조규화, 21세기 한국패션의 세계화를 위한 패션교육방향, 『21세기 패션교육 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한국섬유 산업연합회, 에스모드 서울, 1996, pp.25-29.
2. 프랑스의 프르미에르 비죤(Première Vision), 이태리의 모다 인(Moda In), 프라토 엑스포(Prato Expo), 이데아 비엘라 (Idea Biella), 이데아 코모(Idea Como)등의 소재전시회는 90년대초부터 패션 트렌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신하면서 패션경향을 이끌었고 국내 패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3. 80년대 말부터 나산, 대현, 대하, 논노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소재실이 별도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소재실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소재 전문 인력을 두었다.
4. Kolon Fashion Trend, Interfashion Planning Trend, Samsung Fashion Trend, KOFCA Trend등의 연간 2회의 정보지가 발간되었다.
5. 주은희, Hip-Hop 스타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6.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 한샘출판사, 1994, p.51.
7. 진성호, 스포츠 신드롬, 디지털조선일보, 1997,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711/199711050372.html>
8. Elane Feldman,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B.T.Batsford Ltd., London, 1992, pp.5-6.
9. 1997 Spring & Summer SAMSUNG FASHION TREND for WOMEN, 삼성패션연구소, 1996.
10. 정번상품(定番商品)이란 뜻으로 실용의류나 스테이플(staple)상품을 말한다. 항상 품번이 일정하게 있는 기본적인 의류나 실용의류이다.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681.
11. 조사대상의 의복 전체 보유량은 1인당 53.2벌로 원피스는 적고 점퍼, 코트 등의 중의류보다는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등의 단품류가 많았다. 조규화, 현대여성의 소비실태(서

- 울시내거주 18-41세의 패션의식을 중심으로), 한국패션학회, 1993, p.106.
12. 고감도(高感度)라는 의미로 하이 테크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감성을 말한다. 미국의 미래 예측학자 존 네이스비츠가 그의 저서 메가트렌드에서 하이 테크(High-tech)와 하이 터치(High-touch) 현상을 소개한데서 일약 유행어가 되었다. 조규화, 복식사전, p.681.
  13. 큐프라 암묘늄 레이온은 셀룰로오스계 재생섬유의 하나로 뱀베르크라고도 한다. 비스코스 레이온에 비해 섬도가 높고 탄성이 풍부하며 견과 같은 촉감과 온화한 광택을 지닌 것이다. 조규화, 복식사전, p.540.
  14. 1997 Autumn & Winter SAMSUNG FASHION TREND for WOMEN, 삼성패션연구소, 1996.
  15. 김지영 · 조규화,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1-3, 1997, pp.51-52.
  16. 조사대상의 구입하고 싶은 추동복에 대한 조사에서 ①특별한 날을 위한 정장 40.7%, ②가죽 · 무스탕 19.5%, ③모피코트 11.9%로 가죽과 무스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7. 조규화, 현대여성의 소비실태, p.90.
  18. 90년대 초 이태리 디자이너 프라다에 의해 사용된 소재로, 처음에는 가방이나 신발용의 소재로 사용되다가 의복에도 사용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조밀한 트윙조직으로 광택과 볼륨감이 특징이다. 값싼 합섬 소재를 쿼트르소재로 급부상시키면서 전세계적으로 합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19. 라이크라의 대중화를 위해 1995년 한국 양모사무국과의 울 플러스 라이크라(Wool Plus Lycra)라는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하여 울과 라이크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20. 一見 輝彦, アパレル素材の知識, 株式會社 ファッション教育社, 1993, p.60.
  21. 약품에 젖어서 분해되는 섬유와 젖지 않는 섬유를 혼용한 직물에 문양의 형태로 그 약품을 날염하는 것을 말하며, 날염한 부분에는 젖은 쪽의 섬유가 분해되어 누락되고 젖지 않는 섬유 부분만이 남게 되어 드문드문 보이는 상태를 문양으로 표현한 것. 조규화, 복식사전, p.198.